

성탄의 기다림

누가복음 1 : 39~45

성탄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탄절하면 우리는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장식과 가정 방문, 선물 교환, 새벽송 등... 요즘은 교회보다 세상이 더 난리입니다. 성탄절 전날이 되면 여관이나 호텔의 방이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어려운 이웃, 불우한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이 예전의 성탄절이 아닌 색다른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바로 쓰임 받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실 때 쓰임 받았던 사람들처럼 쓰임 받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신문이나 인터넷을 보면 구인광고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을 뽑는 회사에서는 모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젊은 많은 사람들이 해 마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질적으로 우리 시대의 이 사회에 필요한 일꾼 부족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쩌면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는 시대도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세계를 정복한 로마엔 수많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철학적으로, 사회적으로 훈련된 많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유대교의 엄격한 종교적 훈련을 받은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이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은 뜻밖에 나사렛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름 없는 틴 에이저의 소녀 마리아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녀에게 구세주의 탄생이라는 기적의 일을 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리아의 잉태 이후의 출산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선택되었고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역사의 무대 위에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잘 준비하여 위대하게 쓰임 받게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선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아직도 쓰임 받는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본격적으로 쓰실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쓰심을 기대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준비하며 때를 기다려야 할까요? 선택된 이후 잘 준비하여 쓰임 받았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1. 기뻐하며 기다렸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하면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의 친척인 엘리사벳도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늙어서 임신할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할 세례요한을 임신한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지 벌써 6개월이 되었다고 합니다. 천사가 이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천사가 떠나자 마리아는 서둘러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문안하였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자 큰 소리로 기뻐합니다. 42 절에 “마리아는 모든 여자들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을 받았고 태중에 있는 아기도 복 받은 분이다.”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여기에 "큰 소리로 말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큰 소리' 라는 단어는 본래 "기쁨의 부르짖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자마자 임신한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이 사실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녀의 뱃속에는 메시아가 잉태되었음을 알고 기뻐하였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44 절에 “마리아의 인사하는 소리를 들을 때 내 태중의 아기가 기뻐서 뛰놀았다.” 뱃속에 있는 6 개월 된 아이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메시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뱃속에 있는 6 개월 된 아이가 이 사실 때문에 기쁨으로 뛰놀았습니다. 마리아 자신도 이 일 후에 찬양하면서 47 절에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기쁨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처녀가 임신한 이 마당에 마리아의 인생이 평탄치 않으리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벳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마리아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마리아가 삶의 초점을 자신의 편안함과 안전함에만 두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편안함에 관심 없었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에 관심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했습니다.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깨달았기에 기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기쁨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 기쁨은 밖에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기쁨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진 어떤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다가 그 안에 있는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마침 그때 가난하고 삶에 지친 한 친구가 그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진 이 여인은 그 친구와의 대화 중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인생의 참 기쁨을 경험하게 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석을 발견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석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친구는 “나도 저런 보석만 가질 수 있다면 기쁨으로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하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는 이 여인이 보석을 갖고 있어서 인생이 기쁘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친구는 미친척하고 이 여인에게 말하였습니다. 내 사정이 딱한데 나에게 그 보석을 줄 수 없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이 여인이 그렇게 하자고 하며 보석을 건네어 줍니다.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 친구는 보석을 받아들고 길을 떠나 한참을 여행하는데 이상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보석이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 이 여인의 집으로 가서 그 보석을 돌려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나에게 필요한 것은 보석이 아니라 이 보석을 나에게 건네 준 너의 마음일세.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을 내게 줄 수 없겠나?" 그때 이 여인이 친구에게 성경말씀을 들려줍니다. 느헤미야 8:10 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 한분만으로도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만족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석을 얻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는 이 성탄의 계절, 여러분과 제가 이 보석보다 더 존귀한 주님으로 인해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 마리아는 교제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쓰심을 기대하는 사람마다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교제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을 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혼자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쁨을 나눌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 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첫 구절인 39 절을 보면 마리아가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왜 하필이면 엘리사벳을 찾았을까요? 친척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마도 더 중요한 이유는 그녀가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는 것이 가능한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을 예로 들었습니다. 물론 이 두 여인의 경험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결혼이전이었고 남자 없이 잉태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두 여인에게서 공유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곧 같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끼리 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나 좋은 그룹을 형성하면 치유의 경험을 갖게 됩니다. 나눔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교제에는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변화의 강력한 경험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TV 나 인터넷이 잘 되어 있어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현금도 크레딧 카드로 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리도 불편하고 날씨도 나쁘고 하면 집에서 예배드리지 뭐 하러 교회에 까지 가냐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순히 어떤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영적인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제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삶의 나눔을 위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란 이런 곳입니다. “지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디 아프지 않으셨어요?”하면서 악수하고 hug 하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이런 물음과 돌봄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건강한 교제로 우리의 삶이 평안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제를 잘 하십시오. 교제는 다른 말로 하면 관계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예수님은 한 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약 3 개월 정도 엘리사벳과 교제를 합니다. 교제를 통하여 미래를 직면할 새 힘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미래의 사역을 위해 이런 교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3. 마리아는 찬양하며 기다렸습니다. 마리아의 기쁨은 한걸음 더 나아가 찬양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본문이 바로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46 절에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시작됩니다. "오, 이 몸이 주님을 찬양하며" 하면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찬양하면서 출산을 기다린 것입니다. 최고의 태아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찬양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찬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 하십니다. 찬양 받으실 때,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찬양이 어렵습니까? 우리는 찬양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찬양이라는 단어가 너무 종교화된 까닭입니다. 찬양은 영어로는 PRAISE 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칭찬입니다. 여러분, 칭찬 받으시면 기분이 어떠신지요? 기쁘고, 삶의 에너지가 생깁니다. 교회에서 어른 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이들을 칭찬하고, 학생들을 칭찬하고, 젊은이들을 칭찬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조건 칭찬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도 같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칭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많이 칭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한국 누가회 이사장이자 안양병원장인 박상은 박사님이 강의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박원장님은 강의 중 한 입원환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강의를 하시면서 스크린의 화면에 그 환자의 얼굴 모습을 비추었을 때, 그 사진을 본 모든 사람들은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얼굴만으로도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고사하고 도대체 사람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말기 피부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어느 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암 덩어리들이 눈을 중심으로 입을 제외한 얼굴 윗부분을 완전히 뒤덮고 있었습니다. 눈썹은 말할 것도 없고 눈과 코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얼굴에는 포도알 같은 암 덩어리들이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똑바로 쳐다보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다만 그분의 얼굴에서 가장 유일하게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곳은 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원장님이 진료를 위해 그 분에게 가까이 갈 때마다 잘 들리지는 않지만 늘 흥얼거리며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런 분이 무슨 노래를 부르실까 하며 호기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까이 가서 들어보았는데 놀랍게 그분은 찬송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 23 장이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분은 마지막 남아 있는 입으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자신의 추한 마음을 보혈로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짧은 찬송가 한 곡이 이처럼 놀라운 능력과 영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참 놀라웠습니다. 징그러운 피부암도, 말기암의 고통도 그분의 구원의 감격과 찬송의 영감을 빼앗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 후 그 권사님은 평안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분은 다시 사망이 없는 천국에 있을 겁니다. 다시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천국에서 계실 겁니다. 그곳에서 '만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계실 겁니다.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권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동안 멀쩡한 입과 몸을 가지고 찬송의 껍데기만 붙렸던 제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칭찬의 능력, 곧 찬양의 능력입니다. 칭찬하는 관계, 칭찬하는 공동체에는 건강함이 있습니다. 이 건강함은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저의 기도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뻐하고 교제하고 찬양하면서 미래의 사역을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위대하게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